

전남대병원 이근배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 받아

이근배(사진)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의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기초 및 임상분야를 포함한 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의학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정회원으로 분야 최고 권위의 석학 단체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 영역의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분야의 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 저서 등의 다양한 연구업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정형외과 명의로서 족부족관절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근배 교수는 호남·충청지역 최초로 족부족관절 클리닉을 개설 전문화된 진료를 시행했다.

특히 이 교수는 25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

를 활발히 수행해 18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고, 18건의 전문 학술 저서를 집필했다.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인으로서 는 드물게 정형외과학 교과서로 쓰이는 'Campbell's 정형외과 수술서'에 연구 내용이 수록되기도 했다.

또 이 교수는 의료기기의 국산화 개발에 매진해 아시아-태평양 최초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가동형 인공발목관절'을 개발했으며,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지역 의료수준 향상과 교육에도 열정을 가지고 호남족부족관절연구회, 골대사질환연구회를 창립해 정기적인 학술 활동과 교육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 교수는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회장과 대한골절학회 회장,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편집위원장, AO 한국외상학회 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아시아태평양정형외과학회 족부족관절 이사로서 활발한 국내외 학회활동을 수행 중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겨울방학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 성료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최근 개최한 '2023 겨울방학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 교육이 성료됐다. (사진)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과학관과 박물관 공동기획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는 양 기관의 특색을 살려 주제에 대한 과학 원리와 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프

그램으로 매년 큰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과학관 교육프로그램은 고(故)이건희 회장의 소장품 '브람스' 작품 속 네온사인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직접 자신만의 네온사인 작품을 만들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대 졸업생 박재원씨 모교에 발전기금 기탁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왼쪽에서 두번째)는 간호학과 2023년 졸업생인 박재원씨가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학교 행정관 집결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동진 총장과 장미영 보건복지대학장, 한승희 간호학과장이 참석했다.

박재원(·세번째)씨는 "학교와 교수님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으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소액이지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동진 총장은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인 만큼 아량을 갖고 열심히 해서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선배가 됐으면 한다"며 "많은 선배가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동문들에게 의



지하며 성공하기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대 간호학과는 10여 년 동안 졸업생들이 십시일반 발전기금을 모금해 전달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졸업 선배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보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에 '비상 탈출용 가운' 보급



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최근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착용하고 대피하는 '비상탈출용 목욕가운'을 보급했다.

<보성소방서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 협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과 '문화·예술분야 장애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예술위 제공>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00 두뇌공조(재)	15 헬로킴지 체육교실(재) 30 와썹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도(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 1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문계공향 3(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연중 플러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TBC 특별기획 국민의 힘 당권주자에게 듣는다 <김기현>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50 kbc특집 히어로즈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두뇌공조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트롤리
[11]	30 KBS 뉴스라인	00 개는 훌륭하다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40 아이 러브 스포츠	10 스포츠 매거진 50 포비든엘리 시즌4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미니특공대 브이레전스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워킹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7:15 출동! 슈퍼윙스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인간과 바다
08:00 동등당 유치원	13:50 EBS 다크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가 폴리	14:45 한국의 들레길	<겨울왕국, 캐나다 서부 -천상의 빛, 오로라 투어>
08:35 그린조개 구조대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함께하니 행복해 1부 아빠와 아들>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크프라임
09:20 빅 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35 타타와 쿠마	16:25 그린조개 구조대(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동등당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6일(음 1월 16일 乙未)

<p>36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48년생 제일 처음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나, 60년생 대강 어렵잡아도 틀림없을 것이니 속도를 내자. 72년생 순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양상을 띠게 된다. 84년생 직접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빈틈을 보게 되어 있다. 96년생 독창적인 방향을 세우자. 행운의 숫자 : 38, 80</p>	<p>42년생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느니라. 54년생 판세를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66년생 학수고대 해 오던 결과가 도출될 것이나, 78년생 투명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90년생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02년생 주체성과 확고부동한 자기 확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1, 63</p>
<p>37년생 현실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자. 49년생 상대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61년생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리라. 73년생 미리 준비해 둔다면 머지않아 힘이 될 것이니 만전을 기하라. 85년생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97년생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02, 52</p>	<p>43년생 삼사일언다면 신뢰가 쌓이리라. 55년생 승룡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커진다. 67년생 관리와 유지에 철저하지 않다면 후회하게 되리라. 79년생 기대했던 바 보다는 많지 아니한 이득이지만 짚짚하겠다. 91년생 속단하다가 큰 오류를 남길 수밖에 없다. 03년생 파장에 남은 부스리기만 살피고 있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3, 51</p>
<p>38년생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 50년생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62년생 결코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74년생 곤강풍이 불어 닥칠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86년생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아니 되느니라. 98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하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5, 70</p>	<p>44년생 서두르다면 빈틈을 보이고야 말 것이다. 56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내라. 68년생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뒤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80년생 승성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행동한다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92년생 전환점을 맞이할 갈림길에 서 있다. 04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3, 86</p>
<p>39년생 함께하는 이들과의 인화와 중요한 시점이다. 51년생 불합리함을 차치하고 유용한 요건을 이루어 나가는 자세로. 63년생 공들여 왔던 것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 75년생 단연시 해왔던 점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87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일대로 처리하면 무난하리라. 99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행운의 숫자 : 18, 61</p>	<p>45년생 겹치면서 매우 분주한 하루가 되겠다. 57년생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자. 69년생 배해무익한 것에 대한 청산은 빠른수록 좋다. 81년생 무심코 지나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93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큰일을 도모해야 한다. 05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해 오던 것을 마침내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41, 69</p>
<p>40년생 전체의 입장을 두루 감안하자. 52년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맞다. 64년생 공들여 왔던 일이 있다면 협조를 얻어 목표에 진입하겠다. 76년생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면역할 길을 찾자. 88년생 전체적 국면을 조망하는 안목이 절실하다. 00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50</p>	<p>34년생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알차다. 46년생 귀한 육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도다. 58년생 허려나 명분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질을 우선해야겠다. 70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되는 기쁨이 보인다. 82년생 실증이 난다고 해서 미룬다거나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94년생 또 다른 차원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1, 79</p>
<p>41년생 자기 껍데에 자신이 넘어갈 수도 있다. 53년생 기본에 충실해야만 닥쳐오는 현안에 대비할 수다. 65년생 자신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77년생 재물과 인연이 깊은 날이니 다방면으로 노력하자. 89년생 성사는 되지만 성과는 미흡할 것이다. 01년생 하나하나 따져보고 택해야만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6, 64</p>	<p>35년생 경우에 맞지 않으면 불쾌할 소지가 많다. 47년생 알고도 속아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59년생 대국의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도다. 71년생 합리적인 추진이 불만을 해소해 주리라. 83년생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목적했던 바를 성취하는 단계에 이른다. 95년생 멈추었다가 다시 속개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04, 55</p>